

'나눔의 힘'이 'AIDS'의

저복을 이기기 위한
이기는 힘이다!

☹ 인류의 건강을 해치고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은 어떤 경우에도, 누구에게도 환영 받을 수는 없다. 처방전 없이 약국에 가서 가장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약이 감기약이다. 하지만 아무리 흔한 병이고 치료 방법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다고 해도 감기는 친근하면서도 무서운 질병이다. 각종 보험 상품으로 대비할 수 있고, 현대 의학이 정복했다고 하는 암 역시 여전히 듣기만 해도 고개를 내젓게 된다. 그러나 예방도, 치료도 어려운 인류의 난제인 AIDS에 대한 우리의 태도나 마음이 긍정적이기 어려운 것은 당연한 일일지 모른다.

글 김선혜 독립영화 감독, 드라마 작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솔선수범해 심시일반에 앞장서 함께 나누고 극복해 가는데 놀라운 단결력과 적극성을 보여주는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두레, 품앗이 등 상부상조하고 나누는 합리적이고 가슴 훈훈한 마땅양속을 간직해온 것도 우리 민족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런 이합단고 따뜻한 정신적 토양에도 불구하고 기부분화는 크게 발전 하지를 못했다. 아무도 모르게 살짝, 성정 구절처럼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진정한 '나눔'이고 '자선'이라고 생각해 쉬쉬하며 소리 없이 행해지고 있어 겉으로 보여지는 '기부'에 대한 성과가 작아 보이는지도 모르겠다.

자금 인류 앞에 놓여진 과제 중 풀기 어려운 난제들을 손꼽기 시작하면 환경문제부터 시작해 많은 난제들을 들 수 있겠지만 현대의학이 정복하지 못한 질병 'AIDS'도 손꼽아야 할 우선 해결 과제 중 하나다. 그러나 질병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심해 감염인은 물론 그 가족들까지 병들어 봄이 아픈 것 이상의 고통을 감내해야 하고, 기본적인 인권 침해의 위협까지 느끼며 살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 심시일반의 마음으로 함께 나누고 다독여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다.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것은 '관심'이다.

10원, 100원이 모여 만들어내는 액수의 크기보다 그 10원, 100원을 주머니에서 꺼내기 위해 귀를 기울이고, 시선을 모으고, 내 주머니 속의 동전 하나라도 누군가를 위해 꺼내놓아야겠다는 그 관산과 정성이 돈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해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는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된다.

인류의 난제인 'AIDS' 를 해결하고 극복하기 위해, 편견과 선입견의 벽을 넘어 함께 나누기 위해 점차 많은 사람들이 앞장서고 있다. 미주, 유럽 등 해외에서는 각 사회의 리더들을 중심으로 'AIDS' 와 관련한 각종 자선행사와 기부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다. 기업들도 수익의 일부를 'AIDS' 예방과 치료, 감염인 돕기 명목으로 기부하는 사례도 점점 늘고 있다. 기업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나서기 꺼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세계적인 보석회사나 화장품회사, 의류회사 등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먼저 편견을 깨고 적극적인 참여를 시작하자 빠른 속도로 인식이 바뀌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최근엔 분위기가 크게 달라지고 있다.

'TV 드라마에서 'HIV' 감염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해 시청자의 호평을 받고, 유명 가수들이 참여해 음반을 발표하고 그 수익금을 'AIDS' 예방과 치료에 쓰이도록 기부하기도 한다. 인기 연예인이 기부에 앞장서 모범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격려하고 함께 하는 일도 점차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조금씩 생각과 자세가 달라진다면 'AIDS' 에 대한 인식도, 감염인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시선도 분명 함께 달라질 것이다. 또 함께 나누고 관심을 갖는 그 마음이 모이면 쌓인 돈의 액수보다 더 큰 결과가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의학의 발전이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진심은 'AIDS' 완전정복의 순간을 분명 앞당길 것이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위한다는 것, 무언가를 위한다는 건 오랜 시간을 돌고 돌더라도 결국엔 부메랑처럼 나 자신에게 돌아온다.

'AIDS' 에 대해, '나눔' 에 대해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시선을 모으고, 귀를 기울이며 함께할 수 있다면 좋겠다.



세계 3위 유럽 1위 제약기업의 탄생

사노피-아벤티스는 인류 건강의 미래를 열어갈 새 이름입니다

세계 3위와 유럽 1위 제약기업의 탄생은 2006년 12월 31일, 프랑스와 벨기에의 제약사 사노피와 아벤티스의 합병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사노피-아벤티스는 현재 120개국에 4만 5천 명의 직원과 10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노피-아벤티스는 현재 120개국에 4만 5천 명의 직원과 10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노피-아벤티스는 현재 120개국에 4만 5천 명의 직원과 10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노피-아벤티스는 현재 120개국에 4만 5천 명의 직원과 10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노피-아벤티스는 현재 120개국에 4만 5천 명의 직원과 10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노피-아벤티스는 현재 120개국에 4만 5천 명의 직원과 10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주)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7번길 15
Tel: 02-527-9000 Fax: 02-527-9300


sanofi aventis
www.sanofi-aventis.com